

말씀에 순종하라

성경말씀: 렘11:1-17

지난주: 우상숭배,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, 모두가 한다. 보기에 좋다. 참 하나님: 창조자 하나님, “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가라!”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 몫이다.

유대인: 언약의 백성

11장: 유대인들이 언약을 깨뜨림

유대인: 언약 백성, 하나님께서는 언약들을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어겼다.

1. 아브라함과의 언약: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(창12:1-3). 창15, 17

내용: (1) 땅, (2) 민족, (3) 복의 근원, (4)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음
이삭과의 언약 갱신(창26:1-5), 야곱과의 갱신(창35:1-5)

2. 400년 이집트 종살이, 시내산 언약(출19:5-8), 순종하면 특별한 보물, 제사장 왕국, 거룩한 민족

3.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팔레스타인 언약(신27-30, 수8:30-35),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심판
이집트를 멀리하라. 이집트는 쇠 용광로, 속박의 집, 고난의 장소

가나안: 젖과 꿀이 흐르는 땅, 모세는 이 둘을 비교하며 누차 이야기했으나 백성의 마음은 이집트에
있다. 오늘의 미국과 한국의 현실도 그와 같다.

4. 이 언약들의 핵심 내용: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.

5. 이후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 백성은 율법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드디어 율법 책 자체를 잃어버림. 요시아 왕이 8세에 집권하고 26세에 주의 집을 청소하다가 거기서 율법 책을 발견함(왕하22:1-8). 대제사장 힐기야, 서기관 사반, 사반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왕이 옷을 찢음

a. 왕의 말(22:13): 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.

b. 여대언자 홀다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들을 여주매 그녀가 대언함(15-20).

유다에 대하여: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이 임한다.

요시아에 대하여(19, 20): 마음이 연하여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울었다. 재앙 면제

c. 요시아의 언약 확증(23:1-3): 백성이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함(3절)

d. 요시아가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온 유다를 다니며 우상들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
신접한 자들을 제거함(4-25)

e. 요시아에 대한 평(25), 그럼에도 역부족이었다(26절).

언약이 깨짐(2-8)

오늘 읽은 11장 말씀은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가리킨다(요시아가 21세일 때, 렘1:2).

요시아 왕은 진지하게 율법 책의 언약을 지키려 하였으나 백성은 겉으로는 시늉을 냈지만 속은 여전하였다.

이 개혁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리들에서 언약을 말하게 함(6-8).

백성은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제물은 가져오는데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작은 숲을 만들

언약의 핵심: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(3-5). <말씀에 순종하라!>

순종이란 무엇인가?

순종(3, 4, 7, 8): 성경에서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.

순종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(삼상15장)

주님의 명령: 아말렉을 진멸하라(3절).

사울의 실행: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남겨두었다(9절).

주님의 판단: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(11절).

사울의 대답: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(13).

사울의 변명과 사무엘의 대답(14-21), 17(교만의 문제), 19 설명(탐욕의 문제)

하나님의 결론: 순종이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
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다(22-23).

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?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다(24)

예레미야의 표현(8절):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다.

노아의 시대 사람들(창6:5),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. 노아의 때와 같다.

목을 곧게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. 뉴질랜드 자매님의 간증

순종은 사람의 의무

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: 사람은 창조물이므로 창조자요 주인이신 분에게 순종해야 한다.

1.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(벧후3:9).
2. 구원 이후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옛 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순종(롬 6:13)
3.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(히11:8-10).
4.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(히11:6-7).
5.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행위이다.
6.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디로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지 잘 보여 주고(롬10:2-3)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.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한다.

우리는 어떤가?

순종은 행위이다. 그런데 행위가 다 순종은 아니다. 말씀에 기반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

7.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사례들을 보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(고전10:1-12).

순종의 표본

1.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남겨 주셨다(히5:7-10).
2.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고 주기까지 순종하사 이로써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다(빌2:5-11).

그리스도인의 순종

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요구된다.

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위치와 권위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.

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, 자녀는 부모에게, 종은 주인에게, 젊은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하여야 한다(엡 5:22-33; 6:1-9; 벧전5:5-6).

즉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.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 선출

결론

왜 성경을 읽는가? 특히 구약을, 불순종의 역사

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(고전10:11).

하나님의 명령

다시 태어나야 한다.

성령 충만해야 한다(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).

우리 모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가?